

대전시 유아교육기관의 급식 관리 실태 및 관련 태도

이명희*, 김정현, 이성희¹⁾, 엄정애¹⁾.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,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¹⁾

Management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 in Taejon
Myung Hee Lee*, Jung Hyun Kim, Sung Hee Lee¹⁾, Jung Ae Ohm¹⁾. Department of
Home Economics Education, Early Childhood Education¹⁾, PaiChai University, Taejon,
Korea.

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급식 관리는 유아가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으로 원활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부모도 안심하고 유아를 맡길 수 있게 되도록 질 좋은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.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급식 관리는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, 급식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, 영양 관리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행이 저조하여 유아 영양과 건강에 대한 정확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이 조직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. 유아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의 유아급식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, 적절한 급식시설 및 기구 부족, 재정적·행정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대전시 유아교육기관의 급식 관리를 파악하고, 관련 태도를 분석하여, 현재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향후 질적으로 향상된 효율적인 급식관리 방안을 세우는데 기초자료가 되고자 하였다. 대전시 소재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층화추출하여 87곳의 유아교육기관 및 대상 기관의 교사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개발하여 대상 기관의 원장 및 교사가 자가 기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.

연구대상 유아교육기관을 국공립유치원, 사립유치원, 국공보육시설, 민간보육시설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. 조사대상 유아교육기관의 85.1%가 1일 1-2회의 간식을 실시하고, 점심급식은 94.3%가 실시하고 있었으며, 급식장소는 점심, 간식 모두 대부분 각반 교실(74.7%, 67.8%)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. 급식계획 시 구입 가능한 식품을 가장 우선적으로 근거하였으며(61.0%), 유아의 열량 및 영양소 필요량(85.5%)과 기호도(12.0%)를 고려하고 있었다. 급식관리를 분석한 결과, 조사대상 교육기관의 56.1%가 1달 단위로 식단을 작성하고 있었으며, 국공립유치원인 경우 영양사가 식단 작성을 하고 있었으나, 그 외의 기관유형에서는 원장(38.8%)이 하고 있어 기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($p < 0.001$). 국공립유치원은 주로 수의계약으로 급식 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반면, 그 외의 기관 유형에서는 직접 구매를 하고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($p < 0.001$). 간식준비 방법으로는 국공립유치원인 경우 시판제품의 이용, 주 2-3회만 직접 조리, 학부모 당번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, 보육시설인 경우 매일 혹은 주 2-3회로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($p < 0.01$). 간식 분량은 전체적으로 경험상(56.3%)에 근거하여 공급하고 있었으며, 보육 시설인 경우 대부분 집단간식급식 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($p < 0.01$). 유아 영양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32.2%에 그쳤으며, 조사기관의 65.5%가 체계화된 유아교육기관 급식프로그램을 요구하였으며, 바람직한 급식형태는 전문급식소에 위탁하기(16.1%)보다는 자체급식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($p < 0.05$). 그러므로 기관의 유형별 환경에 적합한 급식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.